

< 취 재 요 청 서 (2차) >

범종교개혁시민연대,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공동 기자회견

서울시의회는 972억 원 종교 특혜 조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

우)04617 서울 중구 동호로 24길 27-17 우리함께빌딩 3층

전화 : 02-2278-1141 / 이메일 : kirf1141@naver.com

수 신 : 각 언론사 담당 기자 / 참조 : 사회부·문화부 담당 기자
제 목 : **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 촉구**
기자회견
배포일시 : **2026. 6. 10(수)**

1.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6월 10일(수), 서울시의회는 제11대 마지막 정례회의 문을 엽니다.
[범종교개혁시민연
대]와 [대한불교조계종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]는 사실상 임기가
끝난 제11대 의
회가 그 마지막 회기에 972억 원 규모의 종교 특혜 조례를 처리하려는 움직임에
대해 강
력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.

3. 문제의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」
(의안 제
3621호)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동명 조례안(의안 제3622호) 두 건입니다. 이에
이 조례안
들의 폐기를 요구하며,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오셔서 취재해
주시기 바랍니
다.

■ 기자회견 개요

- 일시 : 2026년 6월 10일(수) 오후 1시 30분
- 장소 : 서울시의회본관 앞 (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)
- 우리의 주장

첫째, 이 조례안들은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.

둘째, 972억 원에 이르는 전례 없는 종교 특혜다.

셋째, 공교육 자원을 종교 행사에 동원하는 초유의 일이다.

Ⅰ 기자회견 순서

- 사회 : 박광제 사무처장(연구단체, 종교자유정책연구원)

- 시작발언 : 김집중 운영위원(연구단체,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)

- 성명서 낭독 #1

: 서울특별시의회는 특정 종교 편향 지원을 중단하고, 종교중립의 의무를 다하라

- 1) 보화스님(불교,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)

- 성명서 낭독 #2

: 서울시의회는 972억 원 종교 특혜 조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

- 1) 정태운 대표(개신교,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)
- 2) 손상훈 대표(불교, 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)

- 구호 제창

하나, 서울특별시의회는 특정 종교 행사를 지원하는
편향적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.

하나, 서울특별시의회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

‘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지원특별위원회’를 즉각 해체하라.

하나, 비용추계 전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,

시민·종교계·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진행하라.

- 언론사 질의 응답

- 참여자 자유 발언

- 마무리 발언 : 보화스님(불교, 대한불교조계종
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)

- 기자회견 후,

1) 공개서한 서울시의회 민원실에 전달 및

2) 조례안 폐기를 염원하는 종교인들의 침묵 명상을 진행합니다.

■ 첨부 : 1. [성명서 #1] 서울특별시의회는 특정 종교 편향 지원을 중단하고,
종교중립의 의무를 다하라 >>> [성명서 링크](#)

2. [성명서 #2] 서울시의회는 972억 원 종교 특혜 조례 강행을 즉각
중단하라 >>> [성명서 링크](#)

3. 기자회견 현수막 시안

■ 문의 : 02-2278-1141 /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
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

일시 2026. 6. 10.(수) 13:30

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

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, 교회개혁평신도연합,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위원회,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, 우리신학연구소, 종교자유정책연구원, 실천불교승가회, 중앙신도회,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